# 경계 허문 예술, 칠성로 누비며 더 나은 가치 탐색

### 제주민예총 '제프' 18~19일
### 제프 스테이지서 52팀 공연
### 예술 아트마켓엔 14팀 참여

### 노래하는 그림책 북콘서트
### 야외에 아트갤러리도 꾸며

지난해 제프 스테이지. 올해는 이달 18~19일 옛 코리아극장 앞까지 이어지는 칠성로 골목에서 공연, 아트마켓, 전시 등이 마련된다. 사진=제주민예총 제공

제주민예총(이사장 강정효)이 펼치는 제8회 제주프린지페스티벌(Jeju Fringe Festival, 제프)이 올해는 옛 코리아극장 앞과 칠성로 아케이드 일원에서 열린다. 이달 18~19일 이틀 동안이다.

제주프린지페스티벌은 그동안 익숙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도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를 '발견'해 자유로운 예술을 지향하는 아티스트들의 놀이터로 만들어왔다. 산지천, 옛 제주대병원 앞 삼도2동 문화예술의 거리, 옛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야외 등이 그랬다.

이번에는 칠성로 아케이드 전광판 부근에서 옛 코리아극장 앞까지 이르는 거리를 축제장으로 꾸민다. '가치=보다'란 이름 아래 사람들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지우고 만연한 차별을 허물며 더 나은 가치를 고민하는 마당을 이어간다. 70여 팀 200여 명이 그 뜻에 동참해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첫날 오후 2~8시, 둘째날 오후 1~7시30분 가동되는 제프 스테이지에는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올려진다. 도내 35팀, 도외 17팀이 출연한다.

제프 아트마켓은 칠성로 아케이드 일원에 차려진다. 바람(Baram), 내 마음에 저장, 고치가게 볍씨학교, 실바농, 안녕제주, 요꼬레더, 잉여로운 제주생활, 작은쉼표, 잎새노트, 퀼트아지트 등 14팀이 직접 만든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가 이루어진다.

제프 아트갤러리 역시 칠성로 아케이드 일원에서 운영된다. 이데오아트(Ideo Art), 김재민, 안정희, 소랑꽃이 참여해 신선하고 실험적인 시각 예술 작품을 펼쳐놓는다.

제프 북 콘서트는 '노래하는 그림책'을 주제로 19일 오후 4시부터 파스쿠찌 제주탑동점에서 진행된다. 시옷서점의 진행으로 '바당이 웃엄덴' 박순동 작가, '숨비소리' 박은혜 작가가 제주를 노래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제주 작가의 시를 읽고 만든 시화 작품을 전시하고 뽑기 기계에서 동시를 뽑아보는 체험도 운영된다.

제프 홈페이지(www.jejufringe.com) 참고. 문의 064)758-033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10월 19~26일 세 번째 맞는 김만덕주간

### 만덕제·나눔 큰잔치 열려
### 사랑의 쌀·먹거리 등 나눔

10월 19~26일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김만덕주간. 제주도,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상임대표 고두심),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은 첫날 오후 4시 '김만덕상 수상자의 밤'을 시작으로 이 기간에 김만덕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펼쳐놓는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 김만덕 묘탑에서 제40회 만덕제와 김만덕상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는 봉사부문 김영순·경제인부문 박경란씨다.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동문로터리 탐라광장과 김만덕기념관 일대에서는 사랑의 쌀 나눔, 자선바자, 축하공연 등으로 '나눔 큰잔치'가 펼쳐진다. 국수, 짜장면, 떡, 빵, 차, 주먹밥, 수육 등을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김만덕처럼 넉넉한 마음을 나눈다. 특히 김만덕주간을 앞두고 기부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6t의 쌀에 이번 행사 기간 모아진 쌀을 더해 10월 25일 나눔데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달 26일 오후3시에는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방송인 박지윤씨 초청 '시대를 관통하는 여성상-김만덕의 나눔의 가치' 주제 나눔특강이 진행된다. 신(新) 김만덕객주, 어린이 나눔문화 탐험대, 김만덕 유적 탐방, 어린이 나눔사생대회 등도 김만덕주간 행사로 기획됐다.

김상훈 김만덕기념관장은 "잔치 동안에 각종 체험과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즐기며 김만덕의 정신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064)759-6090. 진선희기자

## 문화가 쪽지

### 탐라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원장 전영준)은 이달 19~21일 송원사학회와 공동으로 '10~14세기 동아시아 사회와 국제교류' 주제 제8회 한중 송요하금원사(宋遼夏金元史)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두 나라 학자 6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은 제주대 인문대학 2호관에서 정치·군사, 경제·사회, 문화·문헌 등 3개 분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20~21일은 제주 문화유산 답사가 진행된다. 문의 064)754-2310.

### 종이잡지 씨위드 이야기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북갤러리 파파사이트가 제주에서 발행되는 종이잡지 씨위드 이야기를 '씨위드를 같이 보다(SEE WITH SEAWEED)'란 제목으로 담아냈다.

지난 12일 시작돼 26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는 창간호부터 5호까지의 교정본, 제작에 참여한 작가와 기획자 인터뷰 영상 등을 내놓는다. 부대행사로 이나연 발행인과 박광배 전 충북대 교수의 '씨위드 잡지 토크'(16일 오후 7시), 도슨트 전시(19일 낮 12~오후 5시)가 마련된다.

### 동홍아트홀 할로윈 파티

서귀포시 동홍동 행정복지센터의 10월 동홍아트데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어린이 할로윈 파티로 꾸민다.

16일 오후 7시부터 동홍아트홀에서 1시간 가량 열리는 이번 행사는 펌킨맨과 겨루는 신나는 게임, 할로윈 포토존 체험 등으로 짜여진다. 만 2세 이상 어린이에 한해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 무료. 관람료 대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복나눔 기부데이'를 진행한다. 문의 064)764-7551.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취지로 체육 분야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NH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업체로 체육용품점, 체육시설 등 체육 분야에 한한다. 문화누리카드 문화와 여행 분야 업체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록이 이루어진다. 문의 064)800-9164.

##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17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좀네가 ᄀᆞᆫ기를, "ᄋᆞ멩이야- 족은 바위덜이 '흑룡이 펜안' 놀레 와랑차랑
불럼시민 큰큰ᄒᆞᆫ 바위산이 재게재게 멩글아지난 나 넘이 넘이 좋다게.
경ᄒᆞ곡 나가 성산 앞바당이 큰큰ᄒᆞᆫ 바위산을 울엉 놀레 ᄒᆞ나 느신디
선세ᄒᆞ켜. 전이 전이 느신디 ᄀᆞᆯ아시네게. 경ᄒᆞ난 이제 잘 들어보라.
-오허야 펜안 펜안 족은 바위덜아 모다들라. 성산 앞바당더레 ᄃᆞᆫ
모다들엉 큰큰ᄒᆞᆫ 바위산을 멩글아 보게. 게무로사 못멩글카마는
와랑차랑 심네여라. 흑룡 ᄉᆞ랑 큰생이 봉황이 오람시난 큰큰ᄒᆞᆫ
바위산을 ᄇᆞ려보게. 오허야 펜안 펜안 족은 바위덜아 모다들라.
큰큰ᄒᆞᆫ 바위산을 ᄇᆞ려보게. -자 이 놀레 느신디 줬저."

*** 제주어 풀이**

*와랑차랑(와라치라, 와랑치랑, 왈랑찰랑) : <어찌>큰 규모로 힘차게 흥얼거리 며 흥겹게 진행되는 꼴.
*넘이(너미, 너믜) : <어찌>너무. *느신디 선세ᄒᆞ켜 : 네게 선물할게.
*전이 전이 느신디 ᄀᆞᆯ아시네게 : 전에 네게 말했네.
*펜안 : <아름>편안. (펜안ᄒᆞ다 : 편안하다).
*ᄃᆞᆫ : ᄃᆞᆫ(ᄃᆞᆫ딱, ᄃᆞᆫ짝, 메짝, 맨딱, 모신딱이) : <어찌>남김 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전부.
*게므로사 : <어찌> '기영ᄒᆞ므로사'의 준말(그렇게 했다 한들.)
*와랑차랑 심네여라 : 힘차게 힘네어라.
*심(힘) : <이름>힘. (*심들다, 심드우다 : 힘겹다).
*이 놀레 느신디 줬저 : 이 노래 네게 준다.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움직>:움직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이름>:대이름씨(대명사)/<셈>:셈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토>:토씨(조사)/<때소>:때가림소/<익은말>:익은말/<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1991)

## 저지예술인마을 갤러리노리 '4인의 풍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갤러리노리가 '4인의 풍경'전을 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구스타프 저스트, 캐나다 출신 빈센트 맥킨도, 제주의 나강과 이명복 작가가 주인공이다.

구스타프 저스트는 나이 80에도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며 수채화를 통해 맑고 투명한 심성을 드러내왔다. 내년 5월 갤러리노리 초대전이 예정되어 있다.

갤러리노리에서 두 차례 초대전을 가졌던 빈센트 맥킨도는 현재 한국에서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꽃을 소재로 자신과 주변부 이야기를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아름답게 펼쳐놓는다.

나강 작가는 제주의 자연과 정신을 새롭게 해석한 평면, 입체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엔 제주의 숲을 그린 근작들을 보여준다.

이명복 작가는 제주4·3, 일하는 여성, 곶자왈 등을 소재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부터 참여해온 오스트리아 인터내셔널 레지던시를 통해 제작한 작품과 근작들을 출품했다.

전시는 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4)772-1600. 진선희기자